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	
		배포일자	2023년 7월 11일(화) 총 2매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 당 자	• 삼산농산물검사소장 한영선 ☎440-5601 •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주광식 ☎440-8511 • 담당자 김선희 ☎440-560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해 부적합 농산물 압류폐기

-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66건, 2,655kg 압류·폐기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까지 농산물 총 2,409건에 대해 유해 물질 검사한 결과 2,343건(97.3%)의 농산물이 적합했고,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.

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, 식자재 도·소매점, 대형 온라인몰 등 온·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채소류 2,079건, 과일류 99건 및 기타 231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고 방사능, 중금속 검사 또한 일부 병행했다.

검사 결과 부적합 66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로 채소류 56건, 향신 식물 6건, 과일류 3건 및 버섯류 1건 순이었고, 총 2,655kg를 압류·폐기했다. 기타 유해 물질 검사에서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유해 물질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농약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을 기획 검사해, 베트남산 건고추 9건, 중국산 건목이버섯 1건 및

페루산 아보카도 1건을 유통 차단했다.

앞으로 연구원은 인천지역 농민들에게 잔류농약 부적합 분석자료를 리플렛으로 제작·배포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,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농산물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고온다습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이 많아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중점 검사하고, 유통 차단 효과가 높은 경매 전 농산물 검사를 강화해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

[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전경]